

'SKY 캐슬', 입체적 캐릭터 향연... 끝없는 매료



SKY 캐슬' 입체적 캐릭터들의 향연이 시청자들을 끝없이 매료시키고 있다.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극본 유현미, 연출 조현탁, 제작 HB엔터테인먼트, 드라마하우스, 총 20부작)의 모든 캐릭터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선과 악, 친근함과 의문스러움 등 하나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중적인 면모가 캐릭터를 더욱 인간적으로 그려낸다. 또한 그 간극에

서 발산되는 반전미는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먼저 두 딸의 입시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흔들리는 한서진(염정아). 처음 발견한 박영재(송건희)의 일기 때문에 김주영(김서형)을 의심했지만, 입시 코드를 계속 받기 위해 무릎까지 꿇었다. 그러나 지난 방송에서 일기가 캐슬에 공개되자 "아냐, 문제없어. 우리 예선 영재하고 달라.

다르고 말고"라며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불잡았다. "죽기 전엔 모르는 거죠, 죽어야 아는 거니까"라는 영재의 아빠 박수정(유성주)의 말도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난했던 '과외왕'이라는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탁월한 모사꾼으로 살아온 서진. 욕망을 이루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왔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감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흔들렸다. 그녀를 인간적으로 이해

이중적인 면모로 더욱 인간적으로 그려내

하게 되는 이유다.

서진 못지않게 양면성을 띠는 아빠들도 있다. "비교과는 또 뭐야? 공부만 잘하면 됐지 뭐가 그렇게 복잡해"라며 입시에 대해선 전혀 모르지만, 서울의대쯤은 당연히 합격할 것이라 생각하는 강준상(정준호). 하지만 딸 강에서(김혜윤)의 진교회장 선거를 통해 경쟁자 황지영(최원영)보다 우위에 서고자하는 내면이 폭발했다. 체면 때문에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딸의 성적을 은근히 자랑하고, 진교회장에 당선되자 누구보다 좋아하는 모습이 현실적이었던 것.

또한 거부장적인 차민혁(김병철)의 이중적인 면모는 그를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로 부상하게끔 했다. 노승혜(윤세아)가 주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난 당신이 애를 가르치다 영재네처럼 부모자식 사이 틀어질까 그게 제일 걱정돼요"라고 말했지만, 이에 "제발 맘 좀 똑똑하게 먹어. 부모가 강해야 애들

인생 성공시키는 거야"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서재에 혼자 남은 민혁은 승혜의 말을 신경 쓰며 얼굴에 격정스러운 낯빛이 내비쳤다. 아이들의 교육에는 자신만만한 민혁이지만, 서울의대쯤은 당연히 합격할 것이라 생각하는 강준상(정준호). 하지만 딸 강에서(김혜윤)의 진교회장 선거를 통해 경쟁자 황지영(최원영)보다 우위에 서고자하는 내면이 폭발했다. 체면 때문에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딸의 성적을 은근히 자랑하고, 진교회장에 당선되자 누구보다 좋아하는 모습이 현실적이었던 것.

마지막으로 캐슬에 "비극의 중심"이라는 존재로 떠오른 주영.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던 그녀가 의문의 존재 케이(조미녀)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처음으로 감정의 변동을 보여줬다. 지난 방송에서는 자신을 취재하러 다니는 이수원(이태란)과 갑자기 찾아온 수창 때문에 유난히 불안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영은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택하면서 인간이 가진 다양한 면을 보여줬다. 위협해오는 수창 앞에서 "저도 말할 수 없이 안타깝습니다만, 그게 제 책임입니다"라고 오히려 맞대응을 하고, 자신에 대한 의심을 겨우

기 위해 예선 진교회장 당선에 사활을 걸었다.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함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이를 떨쳐내기 위해 더욱 센 방법을 선택하는 캐릭터가 바로 주영이었다.

더불어 아이들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지만 황우주(찬희)의 성격이 떨어지자 고민하는 수민, 우아한 말투와 달리 반란을 꾸미는 과정에서 인간미를 보여준 승혜, 졸타기에 성공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는 진진희(오나라)와 우양우(조재윤) 부부 등 인간의 입체적인 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SKY 캐슬' 캐릭터들 그 덕분에 시청자들 역시 "최애캐(최고로 애정하는 캐릭터)가 매회 달라진다"며 캐슬 이야기에 더욱 빠져들고 있다.

'스카이캐슬(SKY캐슬)'은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SKY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살살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 드라마로 매주 금, 토요일 밤 11시에 방송하고 있다.



'1대100', 유민상·박지선 마지막 게스트

대한민국 대표 퀴즈 프로그램 '1대100'이 11년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쳐 18일 544회를 마지막으로 종영한다.

'1대100'은 2007년 5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전파하고 큰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퀴즈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퀴즈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퀴즈 프로그램 '1대100'은 수많은 일반인들이 출연해 1인 출연자와 경쟁하며 함께 한 바 있다. 그러한 '1대100'의 종영 소식은 많은 시청자들을 아쉽게 했다.

18일 방송하는 '1대100'에서는 과거 1인 우승자인 유민상&박지선이 출연해 최후의 1인 리턴즈 100인과 역대급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해져, 마지막 회까지도 시청자들에게 치열한 퀴즈 대결로 손에 땀을 쥐는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녹화에 참여한 유민상과 박지선은 각각 7대&17대 우승자로 마지막 회 특집을 맞아 다시 한번 오찬민원에 도전한다.

우승자의 재출연은 그동안 없었던 전례로 유민상의 날카로운 추과 박지선의 박학다식함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마지막 회를 위해 준비된 역대급 문제들을 막힘 없이 풀어내 눈길을 끌었다.

또, 이들과 대적할 상대로는 기존과 달리 최후의 1인 리턴즈 100명이 출연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1대100'에서 유일하게 두 번 우승한 신기록 세운 박지선은 "100인으로 나와서 한번, 1인으로 나와서 또 한번 우승했다. 가정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됐었다"며 자신의 '1대100' 신기록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MC가 "삼금은 어디에 썼나?" 질문하자 박지선은 "출연료를 부모님이 관리하셨다. 처음에는 분명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냐, 네 결혼자금으로 쓰겠다"고 하셨는데, 삼금 입금된 다음날 냉장고가 압문 형으로 바뀌었다"고 답해 100인들을 폭소케 했다.

과연 마지막 회에서 유민상&박지선은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11년만에 증명하는 '1대100'의 마지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모르파티' 싱혼 5인, 자식들도 응원하는 썸+청춘 2막

'아모르파티' 싱혼들, 자식들은 몰랐던 엄마 아빠들의 청춘이 다시 빛나고 있다.

16일 전파를 탄 tvN '아모르파티' 2회에서 배운정의 어머니 이정순, 이청아의 아버지 이정철, 하휘동의 아버지 하창환, 하지웅의 어머니 김현주, 나르샤 어머니 방원자는 크루즈에서 로맨틱한 밤을 맞이했다. 앞서 댄스 파티를 즐겼던 이들은 몇 십 년 만에 코스요리 다녀를 만끽하게 됐다.

낮선 코스요리 주문하는 데 애를 먹긴 했지만 오랜만에 럭셔리한 저녁식사를 즐기며 맥주도 마셨다. 자식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청아의 아버지는 "나의 고정화된 사고만으로 너 왜 결혼 안 하나 물기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하휘동의 아버지는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 와서 결혼할 거라고 하더라. 부모는 믿고 기다리는 것 뿐"이라고

조언했다.

다음 날 싱혼들은 두 팀으로 나눠 첫 기차인 사세보 투어에 나섰다. 이청아의 아버지와 하지웅의 어머니는 아리타 마을로 도자기를 구우러 갔고 나르샤 어머니, 배운정의 어머니 이정순, 하휘동 아버지는 같이 데미파코로 향했다. 이들 모두 낯선 일본의 마음을 누비며 황혼의 우정을 나눴다.

청아의 아버지는 "그동안 여행이 다닐만한 상황이 안 됐다. 아내가 아프니까 벗어나지를 못해서. 시간 날 때마다 딸이 가족여행을 가자고 했지만"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도자기를 좋아하는 하지웅의 어머니는 "아리타를 꼭 거쳐서 가고 싶었는데 오게 돼 좋았다"며 미소 지었다.

이들 본 하지웅은 "어렸을 땐 도자기를 굽는 엄마가 마음에 안 들었다. 아버지 없이 셋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도자기 같은 취미는 사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형제가 학교에 갔을 땐 엄마가 손수레에 양말 속옷을 담아장사했다고 하시더라. 많이 미안했다"고 속내를 밝혔다.

하휘동의 아버지는 진동휘까지 멋지게 됐다. 결에서 보던 나르샤의 어머니도 용기를 냈고 뽀뽀 배우는 게 즐겁다고 말해 딸을 흐뭇하게 했다. 배운정의 어머니도 하휘동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진동휘를 즐겼다. 생애 처음으로 하는 게 많은 부모님을 보며 자식들은 잔재했다.

같이 도자기를 만든 이청아의 아버지와 하지웅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직접 구운 그릇을 선물했다. 이청아의 아버지는 그릇에 딸 이름을 새겨 다정한 면모를 보였고 하지웅은 "우리 엄마는 자기 이름을 적었다"고 섭섭해해 보는 이들을 웃음 짓게 했다.



韓, '보헤미안 랩소디' 전세계 흥행 1위



퀸의 본고장 영국을 누르고 한국이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보헤미안 랩소디'(브라이언 싱어 감독)는 개봉 7주차 주말 박스오피스 1위 탈환과 함께 한국이 영국을 넘어 전 세계 누적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음악의 꿈을 키우던 아웃사이더에서 전설의 록 밴드가 된 '프레디 머큐리'와 '퀸'의 독창적인 음악과

화려한 무대 그리고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은 작품. 배급사 집계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한국이 영국을 넘어 전세계 누적 박스오피스 1위(북미 제외)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은 영국의 누적 수익 약 5천 883만 달러(한화 약 684억 원)를 뛰어넘고 전세계적으로 약 6천 113만 달러(한화 약 692억 원)의 흥행 수익을 기록하는 유이미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내 관객들의 자발적인 N차 관람 유도도 입소문은 물론 사회&문화계에 전파된 퀸 신드롬 덕분이다.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퀸 열풍은 퀸을 배출한 본고장 영국을 앞지르고 전 세계 누적 박스오피스 1위라는 신기록을 탄생시켰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대한민국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 신작 개봉 영화들을 제치고 다시 한 번 박스오피스 1위를 탈환하는 전례 없는 흥행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역대 음악영화들을 모두 제치고 독보적인 흥행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개봉 8주차에 접어들어 현재 어떤 행보도 또 한번 관객들을 놀라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의 운세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음력 11월 12일)



▶**소띠** 분수에 넘치는 일은 하지 말라. 경계망동하다가 관재수에 휘말릴 운이다. □, □, □ 성씨는 현실을 생각하고 전진하는 것이 좋겠다. 1, 2, 3월생은 노란색이 길. 토끼, 말, 닭띠를 멀리하라.



▶**돼지띠** 착하고 어진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바. 그러나 자칫 역효과를 내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 □, □, □ 성씨는 내 것을 내주지도, 남의 것을 받지도 말라. 10, 11, 12월생은 동, 북쪽이 길. 손재수 조심.



▶**황소띠** 오지랖 넓히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 □, □ 성씨는 하루에 한 번쯤 푸른 하늘을 보는 여유를 가지라. 2, 7, 10월생은 자금 문제에 시달리지만 실패하지는 않겠다. 북향 길.



▶**토끼띠** 자신을 지키려면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성공을 바라면 필요 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남에게 굴할 줄도 알아야 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 배신행위다. 5, 7, 10월생은 돈놀이 금물. 가족과 갈등이 심각하겠다.



▶**용띠** 그, 너, 나, 너 성씨는 번덕을 부리지 말라. 3, 5, 7월생 서비스 종사자는 봉사에 눈을 뜨면 지위 향상.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다. 남, 서향 길.



▶**뱀띠** 이정표를 보면서도 세월만 보내는 격이다.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때다. 1, 3, 5월생은 사업에 변동 수 있겠다. 동업을 하려면 3, 4, 10월이 좋겠다. 쥐, 토끼, 말, 닭띠는 피하라. 나이 차이 있는 자와 시비가 있겠다. 서쪽이 길.



▶**말띠** 오랜 방향 끝에 끈구름 잡는 격. 지나친 방향은 나태함과 게으름을 재촉하는 길. 내가 부린 씨앗은 내가 거둬들이게 되니 항상 노력하고 인내하라. 언행이 바르지 못하면 구설에 오른다. 2, 7, 12월생 투기는 금물. 동업을 삼갈 것.



▶**양띠** 쥐구멍에도 벌들 날이 있다. 노력 끝에 열매를 맺었으니 마음이 한층 풍성하다. 지나친 과욕은 흉을 불러들일 수 있다. 다 된 밥에 재 부리는 격. 1, 7, 8, 9월생은 남쪽이 길. 바람처럼 스쳐 가는 인연에게 연연하지 말 것. 파란색이 길.



▶**원숭이띠** 모든 것이 내 것 인양 속단하지 말고, 이해의 폭을 넓힐 것.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주장은 자칫 독선적으로 보여 화를 부른다. □, □, □ 성씨 3, 4, 8월생은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다. 밤길에 차 조심.



▶**닭띠** 그, 너, 너 성씨는 성급하게 굴지 말고 느긋한 자세로 나를 돌아보자.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때. 범, 원숭이, 돼지띠가 도움이 될 듯. 1, 2, 3월생은 검은색을 피할 것.



▶**돼지띠** 근면 성실한 태도로 현재 위치에서 전진하면 사업 번창. □, □, □ 성씨 3, 8, 9, 10월생은 애정의 갈림 수 있으니 화합과 양보의 미덕이 필요하다. 자꾸 변동하는 것은 금물.



▶**호랑이띠** 씨를 뿌렸으니 열매가 맺는 격. 나를 알고 순리대로 행하면 한층 더 길하겠다. 2, 5, 7월생 관재수 있으니 문서 관계를 특별히 조심하고 보증을 서지 말라. 공사를 확실히 가릴 것. □, □, □ 성씨는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니 힘들겠다.